

### 혈변을 주소로 외래로 내원한 환자에 대한 임상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김영선\*, 손혜영, 정혜경, 이선영

목적: 혈변은 임상가가 접하게 되는 흔한 증세로 대장암과 대장 용종, 만성 염증성 장질환 등의 주요 증세이나 외래로 내원한 환자는 간헐적이고 경미한 출혈양과 혈변 후 내원까지의 기간이 길어 정확한 임상적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본 연구는 혈변을 주소로 외래로 내원한 환자의 임상적 의의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방법: 1998년 7월부터 1999년 7월까지 혈변을 주소로 이화여자대학교 목동 부속병원 내과 외래에 내원한 환자 65명(평균 연령  $42.6 \pm 11.4$ 세, 남자 35명, 여자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문진을 통해 병력을 조사하였고, 일반 혈액검사 및 대장 내시경 검사를 외래에서 시행 후 내시경소견을 중심으로 임상적 특징을 비교 분석 하였다. 결과: 혈변 발생 시작부터 내원까지의 기간은  $651.53 \pm 2444.5$ 일, 마지막 혈변 후 내원까지 기간은  $14.7 \pm 19.6$ 일 이었다. 대변 습관의 변화는 모두 33명(50.8%)에서 관찰되었고 혈변의 양상은 배변 후 피가 떨어지거나 호르는 경우가 25명(38.5%), 혈변 양은 차츰갈정도가 22명(33.8%)으로 가장 많았다. 대변습관의 변화나 혈변양, 체중감소, 치질의 병력은 대장 내시경 소견에 따른 질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상부 위장관 조영술이나 위십이지장 내시경은 40명의 환자에서 실시하였고 급성 출혈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는 없었다. 일반 혈액 검사상 평균 혈색소  $13.67 \pm 1.62$ g/dl, hematocrite  $40.04 \pm 4.8\%$ , MCH  $31.36 \pm 2.7$ pg, MCV  $89.9 \pm 10.8$ fL, 혈소판  $263.27 \pm 116.3 \times 103/\mu$ L였다. 대장 내시경 소견상 치질 등의 직장 항문병변이 27예(41.5%)로 가장 많았으며 용종 16예(24.6%), 급성장염 및 비특이성 장염 16예(24.6%), 정상소견 11예(16.9%), 악성종양 7예(10.8%), 만성 염증성 장질환 7예(10.8%), 혈관이형성증(angiodysplasia) 2예, 궤실염 1예(1.5%) 순이었다. 환자를 통한 문진으로 내시경 의사가 치질이나 항문주위의 양성 병변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35예(53.8%)였고 이중 실제로 내시경 소견상 치질이나 항문주위 양성병변을 보인 경우는 13예(37.7%)였으며, 그의 정상소견 8예(22.9%), 용종 6예(17.1%), 급성 장염 및 비특이성 장염 3예(8.6%), 만성염증성장질환 3예(8.6%), 악성 종양 2예(5.7%)로 나타났다.

결론: 혈변을 주소로 외래로 내원한 환자를 추적한 결과 10.8%가 악성종양, 24.6%가 용종, 10.8%가 만성 염증성 장질환으로 진단 되었고 초진시 임상가가 치질이나 항문주위 양성질환으로 진단한 환자 중 37.7%에서 양성 소견을 보였다.

### — F-34 —

### 발병 연령에 따른 궤양성 대장염의 임상적 특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소화기병연구소

이충렬, 김원호, 이꽃실, 조용석, 박인서

궤양성 대장염은 젊은 성인에서 호발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발생 빈도가 점차 감소하다가 노년층에서 다시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 중년층에 비하여 노년층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이유는 밝혀져 있지 않다. 연자들은 궤양성 대장염을 발생 연령에 따라 젊은 성인층과 노년층으로 구분하여 양 군간의 임상적 특성을 상호 비교 분석함으로써 발생연령에 따른 궤양성 대장염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1998년 5월부터 1999년 6월 사이에 궤양성 대장염으로 세브란스 병원을 내원한 131명을 대상으로 하여 발병 연령 및 성별 분포를 관찰하였고, 발병 당시의 연령을 40세를 기준으로 두 군으로 분류한 후, 이에 따른 임상 증상, 병변의 범위, 질병의 활성도 등을 비교하였다.

1) 궤양성 대장염은 남자 55명(42%), 여자 60명(58%)으로 여자에서 흔하였다. 여자는 10대에서부터 점차 발병이 증가하다가 30대에서 가장 호발하였으며 40대 이후에서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남자는 20대에서 발생 빈도가 높았으며 30대에 급격히 발생빈도가 감소하다가 40대에 다시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 남녀 각기 연령에 따라 다른 발생 분포를 보였다. 40세 미만의 환자들에서는 남자 32명, 여자 57명으로 여자가 흔한 반면, 40세 이상의 환자들에서는 남자 23명, 여자 19명으로 남자가 흔하였다( $p$ -value < 0.05).

2) 궤양성 대장염이 발병할 당시의 소화기 증상으로 혈변, 설사, 점액변, 복통 등을 흔히 호소하였으며, 장외 증상으로는 관절, 구강, 항문, 피부 등의 다양한 장기에서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발병 연령에 따른 소화기 및 장외 증상의 차이는 없었다.

3)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 대장내시경상 병변의 범위, 혈중 ANCA 양성 유무, 질병의 활성도 등은 발병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외국의 연구와 유사한 성별, 연령별 발생 분포를 보였으며, 궤양성 대장염은 젊은 성인 뿐 아니라 남성 노인에서도 호발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임상 증상, 병변의 범위, 질병의 활성도 등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